

축하와 애통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풀러 신학교는 다양성과 의견의 차이에 익숙하고, 그러한 차이에 대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풀러에서의 다양성과 의견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던 때가 2018년 6월 4일 주간이었습니다. 졸업식으로 인해 축하의 분위기로 고조된 풀러는 동시에 한아픔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42개국에서 온 661명의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있던 동시에, 저희는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학생들이 호소한 부당함에 대한 외침을 목격했습니다. 졸업식 예배에서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학생들이 보여 준 극적인 시위는 일부에게는 좌절감을 안겨 주는 혼란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활력을 주는 순간이었으며, 풀러의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한 행동의 필요를 촉구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시위는 다수의 흑인 학생들이 풀러에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었고, 아무런 변화도 가져 오지 않는 “단순히 말 뿐인” 정책에 대해 더이상 참을 수 없음을 말해 주었으며, 그에대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풀러의 리더십은 언론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시위를 받아들였고 학생들과 그들의 우려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온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세번의 주말 졸업 행사에서 교수와 행정책임자들은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지원하기로 거듭 약속했습니다. 풀러가 보여준 “네(Yes)”라는 공식적인 인정은 졸업식에서 케냐 출신의 한 학생이 연설을 통해 흑인 학생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 달라고 학교에 권고한 것에 대해 기립 박수로 호응한 것을 포함합니다.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총장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총장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인종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풀러 신학교는 더 빠르고 더 분명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멍니다”라며 래버튼 총장은 시위 당일에 풀러공동체 네트워크에 그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에서 있었던 시위는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학생들이 받은 부당함을 증명하는 ‘고통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총장은 덧붙입니다. 시위가 있는 후, 래버튼 총장은 시위자들에게 마이크를 내어 주었고, 시위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동안 옆에서 지지하였으며, 직원, 학생,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응을 위해 졸업 예배의 비디오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학생들의 시위와 더불어 히스패닉 연구학 교수이자 목회 리더십 교수인 후환 마르티네즈(Juan Martínez) 교수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풀러 리더 중 한 명인 알렉시스 에버네티(Alexis Abernethy) 교수는 다양성과 포용력, 그리고 평등은 교육적, 경제적, 시민적 과제이며, 학문적 우수성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풀러는 완전한 통합을 위한 노력이 풀러 신학교 내의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믿지만, 이 부분에서 전략적인 변화와 혁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현 심리학과 교수인 에버네티 교수를 새로운 지위에 임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진 내의 포용과 평등(Faculty Inclusion and Equity)을 관리하는 차석 부총장(Associate Provost)이라는 지위는 풀러가 직면한 장애물을 인식하고, 소수 민족 교수진의 채용, 유지, 육성을 통해 풀러의 미션과 삶에 있어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에버네티 차석 부총장은 “강의 내용과 교수 접근 방식이 문화적으로 더 적합한 시각을 반영하여 다양성, 포용력, 평등에 관련하여 개인과 기관이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변화를 가져 오고, 교수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위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아프리카인 학생들이 요구한 “아프리카인 미국인 교수진의 채용과 유지를 우선 순위로 하고, 풀러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주요 교과목의 내용에 흑인과 관련된 학문을 통합하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에버네티 교수는 “이러한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는 행동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종적으로 좀 더 포괄적인 환경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기관으로서 함께 종합적인 전략적 과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수회 의장이자 신학과 선교학 교수인 에이모스 영(Amos Yong) 박사는 이러한 변화에 있어 교수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수진 내의 유색 인종의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인 목소리를 아울러 포함하도록 교과 과정을 개혁하며(흑인 학문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윌리엄 E. 파넬 아프리카인 미국인 교회 연구 센터(William E. Pannell Center for African American Church Studies), 라티노 센터(Centro Latino), 코리안 센터(Korean Center), 아시아인 미국인 센터(Asian American Center)와 같은 인종 센터와 협력하여 신학교의 모든 단계에서 행정 책임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영 교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프리카인 형제, 자매를 비롯한 모든 유색 인종들을 더욱 환영 할 새로운 풀러를 향하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수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지목하여 현재 풀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른 문제로는 흑인 학생들을 위한 더 강한 진로 지원과 “흑인 학자의 양성”입니다. 윌리엄 E. 파넬 아프리카인 미국인 교회 연구 센터 원장인 클리프턴 클라크(Clifton Clarke) 교수는 최근 센터가 세 대학원 모두에서 아프리카인 미국인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인 미국인 학생들이 풀러에서 번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이외에, 파넬 센터가 실시할 확고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인 미국인 학생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클라크 교수는 덧붙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마리 클리멘츠(Mari Clements) 수석 부총장대행은 풀러의 심리 대학원이 흑인 학생들과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임상 환경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유색 인종일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약속에 동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부분은 대화의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양성은 오랫동안 우리 [심리 대학원]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단순히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이 아직 있다”고 마리 클리멘츠는 말합니다. 풀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기타 구체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할 것들은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 될 6월 말에 풀러 공동체와 널리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래버튼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풀러는 오랜 역사 동안 믿음과 관련된 대화를 촉진하여, 반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양측 모두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의 초교파 신학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기관은 구성원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는 한 변화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졸업식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시위와 그것이 나타내는 더 큰 긴장은 애도의 표현으로 여겨졌고, 정의에 대한 호소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래버튼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불의에 대한 외침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변화를 향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취할 시간입니다.”